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신체존중감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며, 체기능을 포함하는 남녀공용의 신체존중감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남녀 대학생을 표집하여 두 개의 연구(n1=252, n2=307)를 하였다. 신체존중감은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 체기능존중감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표본에서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남녀 각각의 표본에서 Cronbach's α 값이 최소 .74에서 .91에 이르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고, 4주 간격으로 측정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최소 .75에서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은 남성표본과 여성표본 모두에서 자기존중감, 주관적안녕감, 섭식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신체관련 행동에도 유의한 영향력이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체존중감 하위차원들의 특성은 성별에 따라 뚜렷이 달라서, 남성표본과 달리 여성표본에서는 체기능존중감이 외모나 체중존중감, 자기존중감, 주관적안녕감, 섭식행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연구결과를 성차와 관련하여 논의하였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신체이미지, 신체존중감, 신체존중감척도, 성차, 척도개발

[†] 교신저자 : 김완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wsgim@ajou.ac.kr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다루는 방식과 사회적 관계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신체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Diener, Wolsic, & Fujita, 1995; Pruzinsky, & Cash, 2002; 박은아, 2003 등), 부적응적 섭식행동(Garner, 2002; Stice, 2002), 대인관계의 문제(Kleck, & Strenta, 1980; Nezelek, 1999), 성기능 장애(Wierderman, 2002)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화장과 성형수술, 몸매관리 장비와 서비스,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신체관련 소비와도 관련이 있다(Thompson, & Hirschman, 1995; 김완석과 김해진, 2005; 김완석과 차주화, 2006).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와 관련된 많은 적응적 문제들(예를 들면, 부적절한 섭식제한이나 약물복용, 무분별한 성형수술, 채용장면에서 신체를 토대로 한 차별 등)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같이 신체를 둘러싼 각종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에 대한 담론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현상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과학적 탐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며(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몸 다루기라는 광범위한 행동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실제로 이미 외국에서는 신체지각, 신체만족도, 신체태도를 비롯한 많은 신체관련 개념을 측정하는 많은 표준화 검사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으며(Thompson & Van Den Berg, 2002), 최근 한국의 연구자들이 일부 척도들을 번안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한국인을 위해 표준화된 도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신체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체존중감의 측정과 관련한 이론적 쟁점을 토대로 널리 쓰이는 외국의 척도들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에게 적절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했다.

신체존중감의 측정과 관련한 쟁점

신체존중감과 외모존중감

신체존중감이라는 개념은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또는 자아)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신체존중감이란 자기존중감의 일부이며, 자기존중감이란 자기의 여러 측면에 대한 평가나 느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James (1890)는 자기를 물적자기, 사회적 자기, 심적 자기로 구분하였는데, 물적 자기란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통한, 사회적 자기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인상을 통한, 심적 자기는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을 통한 자신의 의미 또는 특성에 대한 지각이다(한규석, 1995에서 재인용). 그리고 자기존중감이란 이러한 자기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주관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체라는 개념은 구성요소가 단일한 것인가 아니면 복합적인 것인가? 신체존중감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신체존중감을 주로 체중과 외모에 국한해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예를 들어, Franzoi, & Shields, 1984; Mendelson, Mendelson, & Andrews, 2000; Pliner, & Chaiken, 1990 등). 이는 신체이미지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체중이나 외모와 관련한 부적응적 행동들을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외모존중감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신체존중감의 영역

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Harre(1991)는 인간의 신체란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이 체화한 것(embodiment of person)이며 체형과 체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신체이미지 연구분야의 선도자인 Cash는 신체영역을 외모(신체의 심미성) 뿐 아니라, fitness(신체의 효율성)와 건강/질병(신체의 통합성)을 포함하는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예를 들어, Brown, Cash, & Miluka, 1990). 부적응적 행동을 포함해서 자신의 신체에 관련한 인간행동의 다양한 영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외모뿐 아니라 내장기관이나 근육의 기능과 같은 체기능에 대한 존중감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신체만족도와 신체존중감

신체만족도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신체존중감과 관계보다는 자기존중감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만족도를 신체존중감과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신체이미지 측정방법과 도구들을 개관한 Thompson과 Van de Berg(2002)는 신체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들과 신체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모두 신체에 대한 전반적 만족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범주화 하였다. 하지만 신체만족도와 자기존중감이 서로 다른 개념인 것처럼, 신체만족도와 신체존중감도 서로 구분해서 다루어야 할 개념이다. 예컨대, Thompson(2004)은 신체의 크기나 체중지각을 다룬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모에 대한 만족을 외모지향성(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이나 외모평가와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신체만족도와 신체존중감을 구분해서 다룰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신체유지

나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행동들(섭식, 화장, 성형 등)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는 전반적인 자기존중감보다는 신체존중감이라는 영역특정적 개념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신체만족도가 자기존중감과 다른 개념이며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신체만족도와 신체존중감도 당연히 다른 개념이며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일차적인 관심은 신체만족도가 신체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신체불만족과 자기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그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예컨대, 신체만족도 또는 외모만족도는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서, 신체불만족은 특히 여성의 전반적인 자기존중감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예를 들어, Mintz, & Betz, 1986; Wade, & Cooper, 1999; Polce-Lynch, Kliever, & Kilmartin, 2001 등). 마찬가지로, 체중만족도와 자기존중감을 다룬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Miller와 Downey(1999)는 체중과 자기존중감 간에 -.18의 유의한 상관이 있어서 높은 체중이 낮은 자기존중감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이 대부분 상관관계 연구이며, 신체만족도를 신체존중감이 아닌 자기존중감과 관련시킨 것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신체만족도가 신체존중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Tiggemann(2005)은 전향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낮은 신체만족도가 자기존중감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체만족도가 자기존중감의 선행변인임을 실증하였는데, 이런 연구결

과는 신체불만족이 신체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행변인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체이미지 연구분야에서 신체만족도와 신체존중감은 각기 그 토대가 되는 이론이 다르고 이에 따라 측정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신체만족도의 개념화와 측정에는 암묵적으로 직무만족이나 제품만족에 관한 연구들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인 기대-불일치(expectancy-disconfirmation) 이론(Oliver, 1977; Cooper, Cooper, & Duhan, 1989; Wanous, & Lawler, 1972)이 널리 통용된다. 예컨대 부적응적인 신체관련 행동을 개인, 특히 여성이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통해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것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어 나타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여성주의적 관점(McKinley & Hyde, 1996)과 그 토대가 된 객체화이론(Objectification theory)(Frederickson, & Roberts, 1997)은 기대-불일치 이론의 아이디어를 채용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신체만족도의 측정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신체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도식적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들은(예를 들면, Stunkard, Sorenson, & Schulsinger, 1983; Thompson & Altabe, 1991; Thompson & Gray, 1995; Pope, Gruber, Mangweth, Bureau, deCole, Jouvent, & Hudson, 2000) 인체의 외형이나 실루엣을 뚱뚱한 정도가 체계적으로 조금씩 달라지도록 도식적으로 그린 여러 개의 그림을 이용해서 자신의 현재 외형에 해당하는 그림과 이상적으로 여기는 체형그림을 선택케 하고(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재 체형과 이상적 체형을 그리게 해서) 그 차이의 크기를 신체불만족의 추정치로 사용한다. 이

에 비해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대개 자신의 신체의 쓸모(worth)나 의미와 관련이 있는 평가적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Likert 방식으로 답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존중감의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

존중감(esteem)이란 무엇인가? 여러 연구자들은 존중감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면서 ‘평가’, ‘태도’, ‘느낌’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예컨대, Brown, Cash와 Miluka(1990)는 태도를 감정/인지/행동의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삼원모형을 바탕으로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Mendelson, Mendelson과 White(2001)는 “신체존중감(body esteem)은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자기 평가(self-evaluation)를 뜻하는 것(90쪽)”으로 보았고, Francois와 Shields(1984)는 신체존중감 척도를 개발하면서 응답지의 기술을 ‘강한 부정적 느낌’, ‘강한 긍정적 느낌’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척도가 신체부위에 대한 긍정/부정의 ‘느낌’을 측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자기존중감 연구의 종말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Scheff와 Fearon, JR, (2004)는 그동안의 자기존중감 연구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평가(self-evaluation)와 자기느낌(self-feeling)을 구분하지 못하고 척도를 구성할 때 주로 인지적 측면을 포착하는 문항들을 사용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즉, “다양한 자기존중감 척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 질문들은 자기존중감의 인지적 요소를 포착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무시하거나 이를 혼입시키고 있다(79쪽).”고 주장함으로써 자기존중감에는 사회적 측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은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는 용어로서 자부심(자랑스러움)과 수치심을 대표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런 개념들이 암묵적으로 다른 사람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감이 사회적 비교과정이나 자기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특히 집합주의적 문화권에서는 신체존중감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고, 실제 측정도구의 구성에서도 사회적 영향을 의식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금까지 개발된 척도들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신체존중감 척도인 Franzoi와 Shields(1984)의 신체존중감 척도(BES: Body Esteem Scale)나 신체존중감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명한 척도인 Brown, Cash와 Miluka(1990)의 신체적 자기 관련 척도(BSRQ: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긍정심리학의 관점을 채용해서 최근 개발된 Avalos, Tylka와 Wood-Barcalow(2005)의 신체수용척도(BAS: Body Appreciation Scale) 등은 자신의 신체존중감의 사회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Mendelson, Mendelson과 White(2001)의 성인청소년용 신체존중감척도(BESAA: Body-Esteem Scale for adult and adolescent)는 주목할만 하다. 이 척도의 하위척도인 귀인척도의 문항은 “다른 사람들은 내 외모를 멋있다고 생각한다”, “내 또래의 사람들은 내 모습을 좋아한다”와 같은 타인의 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소개한 Scheff와 Fearon, JR.(2004)이 자기존중감의 측정에 사회적 요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고려하면 신체존중감의 사회적

차원을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분리해 낸 척도로 볼 수 있다.

전반적 측정과 부위별 측정

신체존중감 측정도구들은 전반적인(overall) 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와 부위별(site) 또는 국면별(facet) 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표준화된 신체존중감 척도들은 전반적인 신체존중감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척도의 문항들은 신체의 각 부위를 따로 지칭하는 용어들 보다는 신체(body), 외모(appearance, look), 신체적(physical) 등의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Franzoi와 Shields(1984)의 신체존중감 척도는 신체의 부위를 열거하고 해당 부위에 대한 긍정/부정적 느낌의 정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국면별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반적 측정과 국면별 측정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전반적 측정이 적은 문항으로 요약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면별 측정은 문항수가 많아지는 대신에 각 응답을 합해서 전체점수로 삼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신체존중감이 특히 어떤 국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신체존중감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문화적인 차이도 예상할 수 있다. 외국의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전반적인 신체매력도의 평가에는 (목 아래의) 신체매력도 보다는 얼굴매력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Berscheid, 1981; Jackson, 1992에서 재인용; Smith, 1985). 이와 비슷하게,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신체의 미를 연구한 이승희, Rudd, 김재숙(2001)에 따르면, 한국여대생들이 내적인 미를 강조하며 특히 얼굴과 피부화장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미국여대생들은 날씬함 같은 신체적 매력을 강조하며 주로 배나 허벅지, 엉덩이 같은 하체 가꾸기를 최우선으로 간주한다. 한편, 김은실(1997)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한국 여성들에서 외모란 주로 얼굴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몸매(체형)를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는 바, 이는 얼굴이나 몸매가 신체존중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측정보다는 국면별 측정치가 더 적합할 것이다.

한국판 신체존중감 척도 개발의 방향

한국판 신체존중감 척도를 개발하면서 앞서의 논의와 외국척도들의 특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신체존중감의 영역을 체형(외모)과 체기능(건강/fitness)으로 구분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다. 둘째, 신체존중감 척도는 존중감의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요소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남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전반적 신체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특정 외국의 척도를 번안해서 한국판으로 만들기보다는 문항들은 일부 참조를 하되 완전히 새로운 한국판 신체존중감 척도를 개발하고자 했다. 이는 외국의 전반적 측정도구를 한국판을 만드는 경우 해당 척도문항의 번역에 따른 의미동등성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항구성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외국척도들이 개발방향에 비추어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BSRQ나 BAS의 문항들은 사회적 요소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주로 인지적 요소와 감정

요소에 치우쳐있으며, BESAA는 외모중심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기능 영역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신체존중감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는 문항들을 통해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을 분리해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측정도구의 구성

한국판 전반적 신체존중감척도(KOBES: 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

김완석과 차주화(2006)는 외국척도의 문항을 참고해서 체형(외모)에 대한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9개의 문항을 작성한 후 이에 대응하는 체기능 존중감을 측정하는 9개의 문항을 제작하여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며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707명의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심리통계적 특성이 불량한 두 문항을 제외한 16문항은 이 요인 구조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내적 합치도는 하위 표본에 따라 최소 .76에서 최고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은 성별이나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그 양상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을 따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척도의 문항들은 개발할 때, 인지요소와 감정요소의 구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는 문항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기에 이를 반영하는 문항이 적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와 대학원생 2명이 김완석과 차주화(2006)의 문항을 토대로 일부 문항의 진술문을 수정하고,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는 문항을 추가하여(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예쁘다/멋있다고 한다”) 총 24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을 수정제작하면서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는 문항은 가능하면 명시적으로 타인의 평가나 타인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문장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제작할 수 있었지만,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차별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이는 인지로서 평가와 주관적 경험으로서 느낌은 개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일반인들의 언어에서는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외모가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은 ‘생각한다’ 또는 예쁘다고 ‘평가한다’는 인지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은 ‘생각한다(think)’란 용어를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인지요소와 감정요소를 반영하는 문항들은 억지로 분리하기 보다는 신체에 대한 느낌과 평가가 혼재된 일상적인 표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체형과 관련해서 여성의 외모를 서술할 때 쓰는 ‘예쁘다’는 용어는 남성에게는 적절치 않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멋있다’를 병기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여부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작했다.

표본

경기도 소재 한 종합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녀 252명(남 139, 여 113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 과

요인분석

신체존중감을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두 요인으로 가정하고 척도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척도가 이러한 요인구조를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통요인분석법과 베리막스 회전법을 이용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은 적절한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에 .30이상의 부하량을 가진 문항은 없었다. 요인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각 문항의 커뮤날리티와 해당요인 문항들의 문항-총점 상관, 제거시의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커뮤날리티가 .30이하인 문항이 3개, .40이하인 문항이 3개로 나타났다. 이들 여섯 문항은 문항-총점 상관도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그 문항을 제거하는 경우 내적합치도 계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여섯 문항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남은 18개의 최종문항을 공통요인분석법과 베리막스 회전법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근이 1 이상인 요인은 3개로 나타났다. 이는 체형존중감에 속할 것으로 예상했던 9개의 문항이 외모와 관련된 6개 문항과 체중과 관련된 3개의 문항으로 분리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런 결과는 연구자가 본래 신체존중감을 체

표 1. 표본별 두 측정모형의 부합치 지수들:연구1

표본	모형	부합치 지수						
		CMIN	df	p	CMIN/df	TLI	CFI	RMSEA
전체	2요인모형	480.232	134	.000	3.584	.805	.847	.101
	3요인모형	324.235	132	.000	2.532	.884	.911	.078
남성	2요인모형	332.455	134	.000	2.481	.788	.834	.104
	3요인모형	274.568	132	.000	2.080	.846	.881	.088
여성	2요인모형	354.805	134	.000	2.648	.743	.798	.121
	3요인모형	272.802	132	.000	2.061	.834	.872	.097

기능존중감과 체형존중감의 두 요인 구조로 가정한 것과는 달랐다. 따라서, 신체존중감을 이렇게 두 요인으로 가정하는 모형과, 체형존중감을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세 요인으로 가정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AMOS를 이용해서 비교해보았다(표 1 참조). 그 결과 전체표본에서는 3요인모형의 CFI가 .90을 상회하고, RMSEA도 .08 이하여서 2요인모형보다 훨씬 나은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구분한 표본들에서도 모두 두 요인 모형보다는 세 요인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에 관한 외국의 척도들이 체중에 관한 척도를 따로 하나의 하위척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예를 들면, Mendelson, Mendelson, & White(2001)의 BESAA; Franzoi & Shields(1984)의 BES 등), 체형존중감을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한편, 신체이미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남성과 여성의 자료가 동일한 문항과 구조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로 따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남성표본(n=139)과 여성표본(113)

에서 모든 문항들은 해당 요인에 .6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표본과 달리 남성표본에서는 16번 문항이 요인 3에도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요인구조를 성별로 다르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한국판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의 문항과 하위 척도에 대한 요인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신뢰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체기능존중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계산한 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91이었고 남성표본에서 .90, 여성표본에서 .91로 나타났다. 체형존중감척도의 경우는 외모존중감 척도가 전체표본에서 .87, 여성표본 .85, 남성표본 .87이었고, 체중존중감 척도는 전체표본에서는 .82, 여성표본 .86으로 높았으나 남성표본에서는 .74로 다소 낮았다.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관계

외모존중감 척도와 체중존중감 척도 값을 합산해서 체형존중감의 지표로 삼아 성별로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상관계수를 살

표 2. 한국판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의 문항과 요인계수: 연구1

문항	여성(n=113)			남성(n=139)			신뢰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요인2	요인3	
체기능존중감 척도(KOBES-function)							
5.나는 남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	.855			.775			
4.나는 몸이 약한 편이다(-)	-.842			-.803			
9.내 몸은 보통사람만큼은 건강하다	.805			.690			
18.다른 사람들은 나를 건강하다고 한다	.783			.634			전체 .91
7.내 몸에는 아픈 곳이 많다(-)	-.772			-.646			여성 .91
12.나는 쉽게 질병에 걸리는 타입이다(-)	-.762			-.767			남성 .90
2.나의 몸은 건강하다	.718			.790			
16.나는 몸이 허약한 것 같아 창피하다(-)	-.682			-.689		.436	
14.나는 체력에 자신있다	.665			.703			
외모존중감 척도(KOBES-appearance)							
1.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805			.818			
11.나는 남들에 비해 예뻐/멋있는 외모를 가졌다	.794			.788			전체 .87
3.나는 나의 외모가 자랑스럽다	.763			.853			여성 .85
15.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예쁘다/멋있다	.739			.776			남성 .87
6.나의 외모 중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다(-)	-.672			-.578			
13.나는 내 외모에 대해 부끄럽다는 느낌이 든다(-)	-.663			-.596			
체중존중감 척도(KOBES-weight)							
8.나는 내 몸무게를 생각하면 우울하다(-)			.875		.753		전체 .82
10.나는 내 키에 지금의 몸무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790		-.658		여성 .86
17.나는 뚱뚱한 것 같아(마른 것같아) 창피하다(-)			.788		.830		남성 .74
eigen value	5.43	4.67	1.45	6.75	2.80	1.39	
설명량(%)	30.2	26.0	8.1	37.5	15.6	7.7	

1) 이러한 관계가 본 연구에서만 나타난 우연한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을 표본의 일부로 했던 김완석과 차주화(2006)의 자료에서 대학생 표본만을 대상으로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상관계수를 성별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남대생(n=104)은 .35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했지만 여대생(n=100)은 .17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결

과는 그동안 외국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없어서 아직 확실한 설명은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대학생의 경우, 남성들은 체형존중감이 체기능존중감과 관계가 있지만, 여성들은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폐분 결과, 두 존중감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매우 달랐다. 즉, 남성의 경우에는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였으나, $r=.38, p < .01$, 여성의 경우에는 관계가 없었다, $r=-.07, p < .47$.¹⁾

연구 2

연구2는 새로운 표본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구성하였다.

첫째, 연구1에서 밝힌 KOBES의 신뢰도를 살펴보고,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함으로써 교차타당도를 검토한다. 둘째, 이미 서론에서 기술했듯이, 기존 연구들에서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 섭식장애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살펴봄으로써 구성타당도를 검토한다. 셋째, 여러 연구들에서 신체존중감은 신체관리 행동이나 신체관련 소비행동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확인함으로써 준거타당도를 살펴본다. 넷째, 신체존중감 척도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1에서 나타난 신체존중감의 성차를 재확인하고 비교한다.

연구방법

측정도구의 구성

한국판 전반적 신체존중감척도(KOBES)

연구1에서 확인한 18문항짜리 신체존중감 척도를 4점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기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척도를 전병제(1974)가 한국판으로 만든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하였다. 10문항이며 4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남성이 .84, 여성이 .82로 나타났다

섭식장애 척도

Garner(1991)의 섭식장애척도-2를 이임순(1998)이 한국판으로 만든 섭식장애척도-2를 사용하였다. 섭식에 관한 23문항에 대한 동의여부를 6점 척도로 답하게 하는 척도로서, 폭식성향, 체중불만, 체형불만(마르고 싶은 욕구)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폭식성향 척도의 신뢰도는 남성이 .83, 여성이 .89였고, 체중불만 척도의 신뢰도는 남성 .70, 여성 .77, 체형불만 척도의 경우는 남성 .78 여성 .86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금명자(1984)가 만든 승인욕구척도 중에서 Marlowe와 Crowne(1961)의 SDS를 토대로 제작된 문항 27개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양분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자료처리의 편의를 위해 4점 척도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남성이 .73, 여성이 .75였다.

주관적안녕감 척도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에 대한 만족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김완석과 김영진(1997)이 한국판으로 만든 주관적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5문항이며 동의정도를 7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남녀 모두 .87로 나타났다

신체관련행동 의도와 경험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와 약물섭취, 쌍꺼풀 수술과 기타 성형수술, 건강보조식품섭취의 경험과 의도를 양분문항으로 응답하도록 만들었다.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과 연령, 학력, 결혼여부, 체질량지수(BMI) 계산을 위한 체중과 키, 흡연과 음주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표본

경기도 소재 한 종합대학에서 교양강좌인 여성학을 수강하는 남녀 178명(남 106, 여 72명)과 서울의 한 여성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여성 13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 과

교차타당화

교차타당화를 위해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표본의 경우 고

유근이 1이상인 요인이 4개로 나타났고, 여성표본은 3개로 나타났다. 남성표본의 경우 체기능 존중감과 체형존중감에 속하는 문항들이 각기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표본의 경우는 체형존중감에 속하는 문항들이 외모와 체중에 관한 두 요인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1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2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의 모형 적합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표본이나 성별로 구분한 표본 모두에서 2요인 모형보다는 3요인 모형이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표본에서는 3요인 모형이 CFI가 .90을 넘고있고, RMSEA도 .08보다 낮아서 충분히 좋은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표본의 경우 두 모형 모두 별로 만족스러운 지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고, 여성표본의 경우는 3요인 모형이 그런대로 받아들인만한 모형적합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에서 남성표본의 수가 106으로 비교적 작았는데도 카이스퀘어가 (AMOS에서는 CMIN)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2요인 모형이나 3요인 모형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남성표본의 3요

표 3. 표본별 두 측정모형의 부합치 지수들: 연구2

표본	모형	부합치 지수						
		CMIN	df	p	CMIN/df	TLI	CFI	RMSEA
전체	2요인모형	651.809	135	.000	4.828	.767	.816	.110
	3요인모형	392.812	132	.000	2.976	.880	.907	.079
남성	2요인모형	368.054	135	.000	2.726	.704	.766	.128
	3요인모형	271.98	132	.000	2.060	.818	.860	.100
여성	2요인모형	499.942	135	.000	3.703	.763	.791	.113
	3요인모형	328.024	132	.000	2.485	.870	.888	.084

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일부 제거하고(예를 들어, 문항 6, 문항 13, 문항 16)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이었는데, 이들 문항들은 연구1의 결과인 표 2 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요인에서 부하량이 가장 낮거나(문항 6, 문항 13), 다른 요인에도 높은 부하량을 가진 문항(문항 16)이었다. 이런 결과는 이들 문항들이 남성표본에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뢰도

신체존중감 하위척도들의 Cronbach's α 는 전체표본에서 외모존중감이 .87, 체중존중감 .85, 체기능존중감 .89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최소 .81에서 최대 .89의 내적합치도를 보여주었다(표 5 참조).

연구1의 표본을 대상으로 4주 후에 다시 척도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계산하였다($n=212$). 표 4는 각 하위척도의 측정시기와 성별 평균(표준편차)이다. 각 척도별로 2(성별)X 2(측정시기) 혼합요인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세 하위척도 모두 상호작용과 측정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세 하위척도의 평균점수가 4주간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으며, 이런 현상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성별의 주효과는 체기능존중감, $F(1,203)$, $p<.05$, 외모존중감, $F(1,208)$, $p<.01$, 체중존중감, $F(1,210)$, $p < .001$,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하위요인에 관계없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존중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10대에서 성인남녀에 이르는 표본을 대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체기능존중감과 체형존중감이 모두 높다는 결과를 얻었던 김완석과 차주화(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이미지 왜곡이 더 심하다는 결과를 얻었던 Cash와 Grosso(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12세에서 25세까지의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존중감이 높다는 결과를 얻은 Mendelson 등(2001)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것이다.

4주 간격으로 얻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표본에서 외모존중감이 .77, 체중존중감 .80, 체기능존중감 .86이었고, 성별에 따라 최소 .73에서 최대 .90의 신뢰도 계수를 얻었다. 외국의 연구들이 대개 2주의 간격을 두고 재검사신뢰도를 분석한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는 4주라는 비교적 긴 시간간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를 얻었다. 이는 신체존중감의 하위척도들이 비교적 높은 시간안정성을 갖는 척도임을 시사한다.

표 4. 신체존중감 하위척도들의 성별, 측정시기별 평균(표준편차)

측정시기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측정1	67.9(17.3)	63.0(15.6)	56.2(17.5)	49.8(16.0)	66.9(21.8)	50.8(24.3)
측정2	68.5(15.6)	63.5(16.6)	57.0(16.9)	51.0(14.2)	67.6(20.7)	52.0(23.1)

주. 척도값은 최저 0, 최고 100점이 되도록 변환한 값임

표 5. 신체존중감 하위척도의 신뢰도: 연구2

척도	Cronbach's α			검사-재검사 신뢰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외모존중감	.87	.84	.88	.77	.73	.79
체중존중감	.85	.85	.81	.80	.79	.75
체기능존중감	.89	.88	.89	.86	.90	.81
(n)	(178)	(72)	(106)	(212)	(115)	(107)

척도들 간의 상관과 성별 차이

표 6은 측정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를 성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또한 섭식장애의 하위요인들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하지만, 승인욕구와는 상관이 없거나, 있어도 그 크기는 매우 작았다. 체질량지수(BMI)는 남녀 모두에서 체형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지만 체기능존중감과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성별로 따로 분석한 결과는 신체존중감과 관련 척도들의 상관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

신체존중감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여성의 경우, 체기능존중감은 외모존중감과 유의하지만 매우 낮은 상관($r = .157, p < .05$)을 보였고, 체중존중감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체기능존중감이 외모존중감이나 체중존중감 모두와 비교적 높은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98, p < .01, r = .413, p < .01$, 각각. 이런 결과는 김완석과 차주화(2006)의 연구결과와 연구1 표본에서 관찰

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경우는 신체존중감에서 외모나 체중과 같은 체형존중감이 체기능존중감과 거의 독립적인 개념인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꽤 상관이 높은 개념임을 시사한다.

신체존중감과 주관적안녕감, 자기존중감

전체적으로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변인들의 관계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뚜렷했다. 즉, 남성표본에서는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이 모두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안녕감과 .4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여성표본에서는 외모존중감이 $r = .5$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체중존중감이 $r = .30$ 이상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반면, 체기능존중감은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 안녕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신체존중감이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감안하면, 여성의 경우는 이런 영향이 거의 전적으로 체형존중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주관적안녕감에 체형존중감 뿐 아니라 체기능존중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존중감과 주관적안

표 6. 성별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

	신체존중감척도						체질량 지수	자기 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섭식장애척도			승인 욕구
	체형존중감			체기능 존중감	체중 불만	폭식 성향				체형 불만			
	전체	외모	체중										
체형 존중감	전체	1	.904**	.780**	.472**	-.212*	.616**	.558**	-.421**	-.319**	-.694**	-.119	
	외모	.901**	1	.439**	.398**	-.172	.652**	.613**	-.398**	-.260**	-.619**	-.185	
	체중	.836**	.516**	1	.413**	-.193*	.342**	.276**	-.311**	-.296**	.566**	.021	
체기능 존중감		.100	.157*	-.001	1	-.016	.466**	.437**	-.311**	-.182	-.415**	.054	
체질량 지수		-.396**	-.265**	-.448**	.093	1	-.129	.069	.385**	.294**	.287**	.038	
자기 존중감		.534**	.570**	.335**	.129	-.093	1	.625**	-.308**	-.195*	-.538**	-.213*	
주관적 안녕감		.519**	.515**	.375**	.052	-.088	.605**	1	-.071	-.027	-.347**	-.104	
섭식 장애	체중 불만	-.534**	-.313**	-.660**	-.039	.206**	-.195**	-.170*	1	.744**	.612**	.170	
	폭식 성향	-.410**	-.283**	-.452**	-.084	.163*	-.249**	-.186**	.730**	1	.458**	.251*	
	체형 불만	-.702**	-.490**	-.763**	-.049	.415**	-.334**	-.331**	.630**	.525**	1	.119	
승인욕구		-.144*	-.075	-.189**	.018	.004	-.122	-.131	.246**	.186**	.170*	1	

주. 대각선의 위쪽은 남성(n=106), 아래쪽은 여성(n=211)의 자료임.

*, p<.05, **, p<.01.

체형존중감 전체는 외모존중감 6문항과 체중존중감 3문항의 합산값임

녕감을 기준변인으로 하고 존중감의 하위요인들과 신체지표인 체질량지수를 예언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존중감에 대해서, 여성의 경우는 외모존중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546$, $t = 9.02$, $p < .001$,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외모존중감의 영향력 외에, $\beta = .565$, $t = 7.14$, $p < .001$, 체기능존중감도 유의한 독자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229, $t = 2.89$, $p < .01$, $\Delta R^2 = .044$. 마찬가지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여성의 경우는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eta = .412$, $t = 5.72$, $p < .001$, $\beta = .179$, $t = 2.49$, $p < .05$, 각각, 남성의 경우는 외모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 체질량지수가 모두 유의한 독자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563$, $t = 6.85$, $p < .001$, $\beta = .213$, $t = 2.63$, $p < .001$, $\beta =$

.183, $t = 2.43$, $p < .05$, 각각.

이런 결과는 여성의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 안녕감에는 외모존중감이나 체중존중감 같은 체형존중감만이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외모존중감 외에 체기능존중감과 체질량지수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체존중감과 섭식행동

기존의 연구결과들, 즉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존중감을 주로 외모존중감으로 개념화했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표본에서는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이 섭식장애의 하위요인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기능존중감은 섭식장애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표본에서는 체형존중감이나 체기능존중감 모두 섭식장애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과 사회적 바람직성

여성표본의 경우 신체존중감은 체중존중감의 경우만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을 뿐, 외모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은 상관이 없었다. 남성표본의 경우는 신체존중감의 하위차원 중 어떤 것도 사회적바람직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존중감척도에 대한 응답에 사회적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을 드러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체존중감은 기존의 연구결과들로 예측할 수 있던 것처럼,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섭

식행동의 하위요인들은 체형존중감과 높은 상관이 있으나 체기능존중감과 상관이 없거나(여성표본) 그리 높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체질량지수는 체형존중감과 상관이 있지만 체기능존중감과는 상관이 없는바, 이상의 결과는 개발한 신체존중감척도의 수렴변별타당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다른 변인들과 차별적인 상관관계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신체존중감의 개념화나 관련 변인들에 대한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신체존중감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승인욕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신체관련 행동의도에 대한 예언력.

표 7은 행동유형별 의도여부에 따른 신체존중감의 성별 평균과 그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행동의도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체중존중감만이 더 낮았다. 체중조절을 위한 약물섭취 의도의 경우에는 의도가 있는 여성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이 더 낮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미용성형의도가 있는 여성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이 더 낮았다. 남성의 경우는 차이가 없었다.

건강보조식품의 섭취의도에 따른 차이는 의도가 있는 여성집단이 그렇지 않은 여성집단에 비해 체기능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헌혈의도의 경우는 남녀 모두

표 7. 신체관련 행동의도 여부에 따른 신체존중감의 성별 평균(표준편차)

행동별	남성 표본			여성 표본		
체중조절 다이어트	있다(n=44)	없다(n=59)	t-value	있다(n=164)	없다(n=46)	t-value
외모	16.2(3.9)	16.9(2.8)	-1.103	14.6(2.9)	15.7(3.0)	-2.407**
체중	8.4(2.3)	9.3(2.2)	-2.127**	7.1(2.1)	9.7(1.8)	-7.553***
체기능	28.1(4.4)	27.8(4.7)	.300	25.7(4.7)	25.1(4.0)	.720
체중조절 약물섭취	있다(n=5)	없다(n=97)	t-value	있다(n=22)	없다(n=186)	t-value
외모	19.0(4.5)	16.5(3.2)	1.642	13.8(3.0)	15.0(2.9)	-1.800*
체중	8.2(2.6)	8.9(2.3)	-.717	6.1(1.7)	7.9(2.3)	-3.650***
체기능	25.0(7.4)	28.1(4.4)	-1.498	25.5(4.9)	25.6(4.5)	-.117
미용성형	있다(n=14)	없다(n=86)	t-value	있다(n=57)	없다(n=141)	t-value
외모	15.5(3.4)	16.9(3.3)	-1.433	13.8(2.8)	15.4(2.7)	-3.785***
체중	8.7(2.1)	8.9(2.3)	-.344	7.3(2.3)	8.0(2.3)	-2.086**
체기능	27.2(4.1)	27.9(4.7)	-.566	24.8(5.0)	25.9(4.4)	-1.481
건강보조식품 섭취	있다(n=35)	없다(n=57)	t-value	있다(n=83)	없다(n=78)	t-value
외모	16.7(3.1)	16.7(3.5)	-.047	15.0(2.9)	14.8(3.1)	.434
체중	9.5(2.2)	8.6(2.3)	1.731*	8.0(2.3)	7.6(2.4)	.909
체기능	29.0(4.7)	27.7(4.4)	1.372	25.1(4.3)	26.2(4.7)	-1.669*
헌혈	있다(n=56)	없다(n=23)	t-value	있다(n=111)		t-value
외모	16.9(3.2)	15.7(3.6)	1.468	14.8(3.0)	14.9(3.0)	-.286
체중	9.0(2.1)	8.3(2.5)	1.349	8.0(2.2)	7.8(2.5)	.403
체기능	28.5(4.6)	26.1(4.3)	2.109**	26.1(4.3)	24.3(4.7)	2.621**

주. ***, p < .01, **, p < .05, *, p < .10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체 기능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논의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남녀의 신체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때 신체존중감의 측정에 인지적 평가뿐 아니라 정서적 느낌과 사회적영향까지를 고려하고, 체형이나 외모 외에 체기능에 대한 존중감도 따로 측정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신체존중감 측정도구를 개발하려고 했다.

연구결과, 신체존중감은 외모존중감과 체중 존중감 그리고 체기능존중감으로 구성되며,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존중감은 최소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존중감과 주관적안녕감, 섭식행동과 신체관련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체질량지수와도 어느정도 상관이 있었다. 또한, 신체존중감의 측정에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체존중감척도가 이 분야의 연구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신체존중감의 구조와 관련해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존중감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여성표본에게는 만족스러운 수준인데 비해 남성표본에서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남녀용 척도문항을 따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개념구조의 성별차이를 보인 것이 아니라 특정 하위요인에 관한 문항구성의 일부 문제임이 밝혀졌고 또 해당문항들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지 않아도 신뢰도를 비롯한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에서 큰 약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남녀용 척도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런 경우 남녀를 직접비교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신체존중감의 하위요인들의 관계나 이들 요인들이 다른 구성개념들과 갖는 관계성에서 뚜렷한 성차가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연구들에서도 신체이미지의 성차에 관한 증거는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신체만족도의 크기에 관해 성차가 있는바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존중감이 높으며(Mintz, & Betz, 1986; Mendelson et al., 2001), 신체존중감의 구성요소

에서도 차이가 있으며(Cash, & Brown, 1989; Franzoi, & Shields, 1984), 신체만족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가 있다(Furnham, Badmin, & Sneade, 2002; Henriques, & Calhoun, 1999).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발견한 신체존중감 하위요인들 특히 외모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관계의 차이나 이들 존중감들이 관련변인들과 관련되는 양상의 성별차이와 같은 성차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는 바, 이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남성과 달리 여성표본에서 외모나 체중존중감이 체기능존중감과 상관이 없다는 일관된 결과(즉, 김완석과 차주화, 2006, 연구1과 연구2)는 신체의 의미파악에 관해 성별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쩌면, 본 연구의 표본인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경우, 여성에게는 남성과 달리 자신의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가에 대한 평가나 느낌이 현재의 삶에서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이어서 신체존중감이 외모나 체중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로서, 다양한 연령층의 표본을 대상으로 신체의 의미지각에 관한 질적인 연구를 발표한 Halliwell과 Duttmar(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남성은 신체를 단일단위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여성은 신체를 많은 부위들로 구성된 것으로 개념화해서 다면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p.682)”고 주장하고 이를 남성은 신체를 통합적(holistic)으로 개념화하는 반면에, 여성은 차별적(differentiated)으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비슷하게, 신체부위별 존중감척도를 개발한 Franzoi와 동료들(Franzoi & Shields, 1984; Franzoi, Kessenich, &

Sugrue., 1989)은 젊은 남성은 젊은 여성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젊은 여성은 신체부위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남성들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높은 관심, 예를 들면 남성용 화장품시장의 확대라든가 취업을 위한 낮은 수준의 성형수술의 유행 등은 남성들의 신체관련 경험을 이해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자극하는바,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신체 이미지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 성차를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성차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체존중감척도의 활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은 필요에 따라 하나의 척도로 통합해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두 하위척도를 하나로 통합한 체형존중감 척도는 전체표본에서 .87, 여성표본에서 .87, 남성표본에서 .86의 양호한 내적합치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두 하위척도간의 상관계수도 .40이상으로 높고, 다른 척도들과의 관련성에서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기능존중감과 통합해서 하나의 복합점수를 산출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

본 연구를 포함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여대생을 연구대상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연령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만을 본다면, 여대생의 신체존중감 연구에서 체기능존중감은 거의 쓸모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다. 즉, 여대생의 체기능존중감은 외모존중감과만 약간의 상관이 있을 뿐 체형존중감 뿐 아니라 자기존중감, 주관적안녕감, 체질량지수,

사회적 바람직성, 섭식행동, 다이어트나 약물 섭취, 성행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대생에서는 체기능존중감이 자기존중감이나 주관적안녕감, 섭식행동 등과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 여대생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중장년층 여성을 비롯한 다른 인구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모보다는 건강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김완석과 김철민, 2002), 여대생과 달리 마른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내면화할 가능성도 더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다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연구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연령층의 신체존중감에 관한 기준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체기능존중감과 체형존중감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신체존중감이 주관적안녕감과 자기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외모나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바, 이러한 신체의 변화와 이에 대한 주관적 지각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젊은 여성뿐 아니라 중년과 장노년 남녀의 행복한 인생의 영위를 이해하고 돕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기준자료는 연구자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연구들은 변인들의 관계에 관심을 두어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표본들의 집단 평균치를 분석할 뿐, 이를 다른 표본에서 얻은 평균치라는 관점에서 살펴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정 연구자료의 해석을 위해 기준자료를 참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Thompson, 2004). 예를 들어, 어떤

연구표본의 신체존중감이 다른 기준자료에 비해 매우 높다면, 이는 그 표본에 뭔가 특이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표본구성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다. 반대로, 배우나 무용가 같은 특수한 집단을 일부러 표집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표집한 표본이 타당한지는 기준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자 (1984). 내담자의 승인욕구와 상담자의 자기공개가 내담자의 자기공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완석, 김혜진 (2005). 여성의 신체이미지 지각이 신체관련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6(3), 27-40.
- 김완석, 차주화 (2006). 신체가치와 소비행동: 척도개발과 활용을 위한 탐색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7(3), 455-485.
- 김완석과 김영진 (1997). 주관적 안녕척도: 공동 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61-82.
- 김완석과 김철민 (2002). 몸의 심리학: 몸에 대한 생각과 소비행동. 몸의 시대, 아름다움을 찾는 소비자 심리. 한국 비자광고심리학회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pp 1-20.
- 김은실 (1997). 여성의 건강관리와 육체 이미지의 소비문화.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 (문옥표 편), 275-3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은아 (2003). 객체화된 신체의식척도 한국적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 이승희, Ridd, N. A., 김재숙 (2001). Body image I: A comparison of ideal beauty,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mong Korean and American Wom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 (5), 969-980.
- 이임순 (1998). 섭식장애가 식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valos, L., Tylka, T. L., & Wood-Barcalow, N. (2005). The Body Appreciation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Body Image*, 2, 285-297.
- Berscheid, E. (1981). An overview of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ome comments upon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knowledg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G. W. Lucker, K. Ribbens & J. A. McNamara (Eds.), *Psychological Aspect of Facial Form, Monograph No 1*. Ann Arbor, Mich.: Center for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Jackson, 1992에서 재인용).
- Brown, T. A., Cash, T. F., & Mikulka, P. J. (1990). Attitudinal body 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1&2), 135-144.
- Cash, T. F., & Grasso, K. (2005). The norms and stability of new measures of the multidimensional body image construct. *Body Image*, 2, 199-203.
- Cooper, A. R., Cooper, M. B., & Duhan, D. F.

- (1989). Measurement instrument development using two competing concepts of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nd Complaining Behavior*, 28-3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Wolsic, B., & Fujita, F. (1995).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1), 120-129.
- Franzoi, S. L., & Kessenich, J. J., & Sugrue, P. A. (1989).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body awareness: An experiential sampling study, *Sex Roles*, 42(9/10), 887-915.
- Franzoi, S. L., & Shields, S. A. (1984). The body esteem scal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d sex differences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2), 173-178.
- Fredrickson, B. L., Roberts, T-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Furnham, A., Badmin, N., & Sneade, I. (2002). Body image dis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s in ea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reasons for exercise.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 (6), 581-596.
- Garner, D. M. (1991). *Eating Disorder Inventory-2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Garner, D. M. (2002). Body image and anorex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95-303). New York: Guilford.
- Halliwell, E., & Dittmar, H. (2003).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women's and men's body image concerns and their attitudes toward aging. *Sex Roles*, 49, 675-684.
- Harre, R. (1991). *Physical Being: A Theory for a Corpore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 Henriques, G. R., & Calhoun, L. G. (1999).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esteem and self esteem. *The Journal of Psychology*, 133 (4), 357-368.
- Jackson, L. A. (1992). *Physical Appearance and Gender: Sociobiological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Albany, N. 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James, W. (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Jenry Holt.
- Kleck, R. E., & Strenta, A. (1980).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negatively valued physical characteristics o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61-873.
- Maddox, R. N. (1981). Two-factor theory & consumer satisfaction: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97-102.
- Marlowe, D., & Crowne, D. P. (1961). Social desirability and responses to perceived situational demand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5, 109-115.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endelson, M., Mendelson, B. K., & Andrews, J. (2000). Self-esteem, body esteem, and body-mass in late adolescence: Is a competence X importance model neede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249-266.
- Mendelson, M., Mendelson, B. K., & White, D. R. (2001).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1), 90-106.
- Miller, C. T., & Downey, K. T. (1999). A Meta-analysis of heavy weight and self-esteem.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Review*, 3, 68-64.
- Mintz, L. B., & Betz, N. E. (1986). Sex differences in the nature, realism, and correlates of body image. *Sex Roles*, 15, 185-195.
- Nezlek, J. (1999). Body image and day-to-day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7, 793-817.
- Oliver, R. L. (1977). Effect of expectation and disconfirmation on postexposure product evaluation: Alternative interpret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4, 480-486.
- Pliner, P., & Chaiken, S. (1990). Gender differences in concern with body weight and physical appearance over the life s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2), 263-273.
- Polce-Lynch, M., Myers, B. J., Kliewer, W., & Kilmartin, C. (2001). Adolescent self-esteem and gender: Exploring relations to sexual harassment, body image, media influence and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25-244.
- Pope, H. G., Gruber, A. J., Mangweth, B., Bureau, B., deCole, C. Jouvent, R., & Hudson, J. I. (2000). Body image perception among men in three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1297-1301.
- Pruzinsky, T., & Cash, T. F. (2002). Understanding body image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3-12). New York: Guilford.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eff, T. J., & Fearon, JR, D. S. Cognition and emotion? the dead end in self-esteem research. *Journal of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34(1), 73-90.
-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 Smith, G. (1985). Facial and Full-length ratings of attractiveness related to the social interactions of young children, *Sex Roles*, 12, 287-293.
- Stice, E. (2002). Body image and bulim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304-311). New York:

- Guilford.
- Stunkard, A. J., Sorenson, T. I., & Schulsinger, F. (1983). Use of Danish Adopting Register for the study of obesity and thinness. In S. Kety, L. P. Rowland, R. L. Sidman, & S. W. Matthysse (Eds.), *The Genetics of Neurological and Psychiatric Disorders*(115-120). New York: Raven Press. cited in Thompson & van den Berg(2002).
- Thompson, C. J., & Hirschman, E. C. (1995). Understanding the socialized body: A poststructuralist analysis of consumers' self-conceptions, body images, and self-care pract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139-153.
- Thompson, J. K. (2004). The (mis)measurement of body image: Ten strategies to improve assessment for applied and research purposes. *Body Image*, 1, 7-14.
- Thompson, J. K., & Altabe, M. N. (1991). Psychometric qualities of the Figure Rat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0, 615-619.
- Thompson, M. A., & Gray, J. J.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ew body-image assessment too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4, 258-269.
- Thompson, M. A., & Van De Berg, P. (2002). Measuring body image attitudes among adolescents and adults.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142-154). New York: Guilford.
- Tiggemann, M. (2005). Body dissatisfac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Prospective findings. *Body Image*, 2, 129-135.
- Wade, T. J., & Cooper, M. (1999). Sex differences in the links between attractiveness, self-esteem and bo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1047-1056.
- Wanous, J. P., & Lawler III, E. E. (1972). Measurement and meaning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6, 2, 95-105.
- Wiederman, M. W. (2002). Body image and sexual functioning.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87-294). New York: Guilford.
- 1 차원고접수 : 2007. 5. 13.
심사통과접수 : 2007. 6. 28.
최종원고접수 : 2007. 6. 28.

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KOBES): Development, Validation, and Gender Differences

Wan-Suk G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u University.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KOBES: 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 which reflects 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aspects of body esteem, and which encompasses bodily function as well as bodily form and that can be adopted to both sexes, two independent research were performed with university students($n_1=252$, $n_2=307$). Body esteem revealed as 3 factor structure which was consisted of 1) appearance esteem, 2) weight esteem, and 3) bodily function esteem. These structure was stable across two independent samples, and between male sample and female sample.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Cronbach's α) were .74 - .91 across sub samples, and test-retest reliability coefficients were .75 - .90 depending upon sub samples. KOBES had moderately high correlations with self-esteem, subjective well-being, and eating disorder scale(EDI-2). Besides them, KOBE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body-related behavioral intentions about diet, cosmetic surgery, drugs for weight loss especially in female sample. KOBES had no relations with social desirability scale.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correlation patterns among the KOBES sub-scales and between the KOBES and other measure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view of gender difference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were proposed.

Key words : body image, body esteem, KOBES, gender differences, scale development